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의 다차원적 분석*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in Music Textbooks

김아현**

A Hyun Kim 

초록 본 연구는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다차원적 분석 틀에 따라 고찰하고,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차원적 분석 틀에 기반한 연역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고,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음악 교과서 67권을 연구 대상으로 기능 중심, 개념 중심, 학습자 발달, 사회문화적 맥락, 문화 정체성의 다섯 분석 초점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과 개념 중심의 기악 활동은 반복적이나 학습의 심화와 전이는 부족하였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국악기 경험의 제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 정체성 지원을 위한 성찰 활동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국악 기악 교육이 기능 중심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국악 기악 교육 내용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국악 기악 교육, 다차원적 분석, 문화 정체성, 사회문화적 맥락, 음악 교과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presented in music textbooks through a multi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its development in schools. As a research method, deduc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a multi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 was employed. A total of 67 elementary and secondary music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were analyzed using five analytical focuses: skill-centered, concept-centered, learner development, sociocultural context, and cultural identity. The results show that skill- and concept-centered instrumental activities were frequently repeated; however, opportunities for deeper learning and transfer were limited. In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students' experiences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were restricted, and regional representation was uneven. In addition, reflective activities to support cultural identity were insuffici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urrent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remains largely skill-oriented.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organizing educational content and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in schools.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multidimensional analysis, cultural identity, sociocultural perspective, music textbooks

* This study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a poster presented at the 2025 winter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Korean Music Educators

** First author, E-mail: inoasis02@naver.com

Instruct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2065 Cheongnam-ro, Cheongju-si,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5, Reviewed (Revised): 31 December 2025 (1 February 2026), Accepted: 22 Februar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보듯이,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의례 행위, 신호 전달, 축제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악기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문화를 구축해 왔다. 이는 악기 소리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고유한 음악 문화를 형성해 왔음을 보여준다. 악기는 삶의 소리 도구에서 점차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도구로 발전하였고, 사람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문화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우리는 기악 교육이 연주 기능 습득뿐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와 사고, 그들이 속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활동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음악 교육은 이러한 기악 교육의 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기악 교육은 학생들이 악기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적극적인 음악 활동”으로(Kwon et al., 2009, p. 193) 정의되며, 악기 연주하기, 리듬 반주하기, 창작 작품을 악기로 표현하기, 감상곡과 연관하여 악기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Kim et al., 2022).

기악 교육은 국악 교육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주요 연구들은 교육과정 및 음악 교과서 내 국악 기악 교육과 국악기 수록 현황(Cho & Kim, 2016; Han, 2020; Lee, 2016), 소금, 단소, 사물악기 등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기별 지도 내용 및 방안(Jeong, 2014; Kim, 2011), 교육용 국악기로서 해금, 가야금의 가능성 탐색(Jung, 2005; Lee, 2011)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중 전구슬(Jun, 2015)의 연구는 역사적 맥락, 사회적 기능, 음악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금의 지도 내용을 제시하여 우리 음악 문화의 특징을 교육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문화적 맥락과 연계한 기악 교육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 연구들은 국악기 지도 내용, 지도 방안, 특정 국악기 중심의 연구와 같이 기능 학습 중심의 교수·학습 연구가 주를 이루어,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기준과 논리에 따라 조직, 배열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정은경(Jung, 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국악기 중심의 제한적 기악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 음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통 악기는 서양 악기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국악 기악 활동은 너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서양 음악 문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악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음악 문화를 체득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악기는 “음악 문화의 창조성과 주체성이 융합되어 나타난 독특한 심미 의식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매체”이다(Han, 2009, p. 15). 이를 통해 우리

는 그 사회를 형성해 온 음악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악 교육의 역사적 맥락과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제는 국악 기악 교육을 연주 기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제시되고 있는지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다차원적 구조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차원적 구조는 국악기 고유의 연주 발달 체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교육 관점과 기준에 따라 조직·제시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 틀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 음악 수업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단편적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넘어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악 기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한 다차원적 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다차원적 구조에서 분석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셋째, 분석 결과는 향후 학교에서의 국악 기악 교육 내용 구성 및 교수·학습 설계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국악 기악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본 절에서는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음악 교과서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관점에 따라 선택되고 조직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단순한 학습 자료의 배열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 내용이 선택되고 구조화되는 논리가 반영된 교수·학습 자료로 여기에 담긴 교육 내용은 특정 교육 가치와 교육과정 이 지향하는 바를 근거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이론적 검토는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구성 요소들의 조직 논리와 의미에 따라 다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교육과정 이론에서는 교육 내용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에는 타일러(R. Tyler)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

와 브루너(J. Bruner)의 지식의 구조가 있다. 먼저 타일러는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 시간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로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은 중요한 교육과정 요소를 수직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 계열성은 학습 경험을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 통합성은 학습 경험을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관점, 기능, 태도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한다(Tyler, 2024, pp. 90-92).

이 세 가지 원리는 교육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안에서 반복과 확장 그리고 상호 연결을 통해 구조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에서 모든 교과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도달하고 그 아이디어를 점점 더 복잡한 형식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그것에 관한 이해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하는 학습의 구조를 강조하였다(Bruner, 2017). 이는 같은 내용을 점점 더 높은 수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시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아이디어로 학습이 개념의 구조화를 통해 반복·심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브루너의 논의는 교육 내용이 고정된 단계로 구분되기보다 교과서 내에서 동일한 개념이나 내용 요소가 반복·확장·재구성되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구조는 에릭슨(H. Erickson)과 래닝(L. Lanning)에 의해 고안된 개념 기반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학문의 핵심 개념과 개념적 아이디어가 학습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때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에 전이시킬 수 있는 이해에 도달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Erickson et al., 2022).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관점은 교육 내용이 개별 기능이나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될 때 그 교육적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 발달과 관련된 이론은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피아제(J. Piaget)와 비고츠키(L. Vygotsky)가 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세~)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발달 단계는 모든 문화권의 아동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불변적 순서라고 설명하였다(Lee et al., 2002). 이는 학습이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게, 즉, 현재 발달 수준에 맞게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며(Lee et al., 2002), 학습 경험은 발달 단계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뒷받침한다. 피아제의 논의는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학교

급별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관점으로 활용한다. 한편,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은 학습을 개인의 내부 인지 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는 아동 발달을 환경과 아동의 인격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체험으로 설명하면서 동일한 환경이라도 아동의 연령, 인격, 체험 방식, 그 상황을 이해·인지·감지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Han, 2022). 이는 환경 조건이 발달의 절대 조건이 아니며, 아동의 발달 가능성에 따라 환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비고츠키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발달의 최종 산물 역할을 하는 교사나 유능한 동료 학습자가 없다면, ‘저발달’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Han, 2022, p. 134). 이는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개별 학습뿐 아니라 협력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이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학습자 발달이나 교육과정 조직 원리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학습은 끊임없이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세 가지 맥락의 통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Jo, 2015). 그중 피나르(W. Pinar)와 애플(M. Apple)의 주장은 교육 내용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피나르는 “교육과정의 어원인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를 교육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갖는 본질적 의미”로 보았다(Kho, 2016, p. 26). 이것은 교육 속 개인적 경험이 갖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읽고 수정하는 일이 발달 과정을 촉진하고 자기 이야기가 분석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관심과 편견이 탐구 대상으로 드러난다(Lee, 2002)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서전적 접근은 교육의 초점을 지식 또는 학문으로부터 개인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Lee, 2002)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문화적·개인적 경험을 반성하고 의미를 확장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피나르의 관점은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될 때, 학습자의 개인적·문화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관점은 문화 정체성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내용의 단서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피나르가 개인의 내부 세계로부터 학습 경험의 근원을 찾았다면, 애플은 사회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차원에서 지식이 선택되고 조직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ho, 2016).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불평등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왜곡된 특정 문화적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Kho, 2016, p. 31). 이는 기성세대에 의해 설계된 문화의 위계 속에서 지식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은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과 새로운 대안 탐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ho, 2016). 애플의 비판적 관점은 음악 교과서에 제시

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문화적 가치와 관점을 중심으로 선택, 구성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분석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피나르와 애플의 논의는 ‘학습자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학습은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단일한 관점으로 설명하기보다 서로 다른 교육적 관점들이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국악 기악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한 다차원적 구조 설정

앞 절에서 논의한 이론들은 국악 기악 교육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여러 이론적 관점이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차원적 구조는 기능 중심 분석 초점, 개념 중심 분석 초점,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 등 다섯 가지 분석 초점으로 구성된다. 이 분석 초점들은 교육과정 이론, 학습자 발달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에서 도출된 서로 다른 이론을 해석의 렌즈로 삼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인가를 구체화한 분석 기준이다. 이것은 상호 간에 우열이나 단계적 서열을 전제하지 않으며, 하나의 국악 기악 교육 활동이 복수의 분석 초점에서 동시에 해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1) 기능 중심 분석 초점

기능 중심 분석 초점(Skill-centered analytical focus, SK)은 타일러의 학습 조직 원리와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학습자가 어떤 순서와 단계로 연주 기능을 습득하도록 조직, 제시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을 의미한다. 국악 기악 교육에서 비중이 큰 활동은 단연코 연주하기이다. 악기 기능 습득은 타일러의 원리에 미루어 보아 자세, 호흡, 운지, 주법과 같은 기초 기능에서 가락 연주까지 기능을 습득하는 일련의 순서가 있으며, 브루너의 나선형 원리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미 습득한 기능을 반복·심화·확장하도록 조직된다. 따라서 기능 중심 분석 초점에서는 연주 기능이 교과서 안에서 어떻게 반복되어 제시되는지, 기초에서 응용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조직되어 있는지, 악기

연주 활동이 음악 요소 및 다른 영역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지, 학습자가 경험을 누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 조직과 활동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개념 중심 분석 초점

개념 중심 분석 초점(Concept-centered analytical focus, CO)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 에릭슨·래닝의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국악 개념을 교육 내용의 주요 요소로 삼아 국악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전이하도록 조직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이다. 음악 교과서는 다른 교과와 달리 기능 습득이 필요한 교과로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Kim, 2025). 이러한 특성은 기악 활동이 단순한 기능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개념 형성을 위한 중요한 학습 맥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개념 중심 분석 초점에서는 국악 기악 경험을 통해 어떠한 개념이 형성되는지, 형성된 개념이 어떻게 반복·확장되어 제시되는지, 형성된 개념이 국악의 구조와 우리 문화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구성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3)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Learner development-oriented analytical focus, DO)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와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활동이 학습자의 발달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이다. 학습자의 수준과 환경은 학습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악 기악 교육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국악 기악 교육에서는 피아제가 제시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국악기를 선정하여 해결 가능한 수행 과제와 난이도로 음악적 경험을 제시해야 하고, 더불어 비고츠키의 이론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기악 활동은 교사 또는 동료의 지원이 가능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은 교과서의 국악 기악 활동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사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학습자의 잠재적 발달을 위해 도전적 과제를 제시했는지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활동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4)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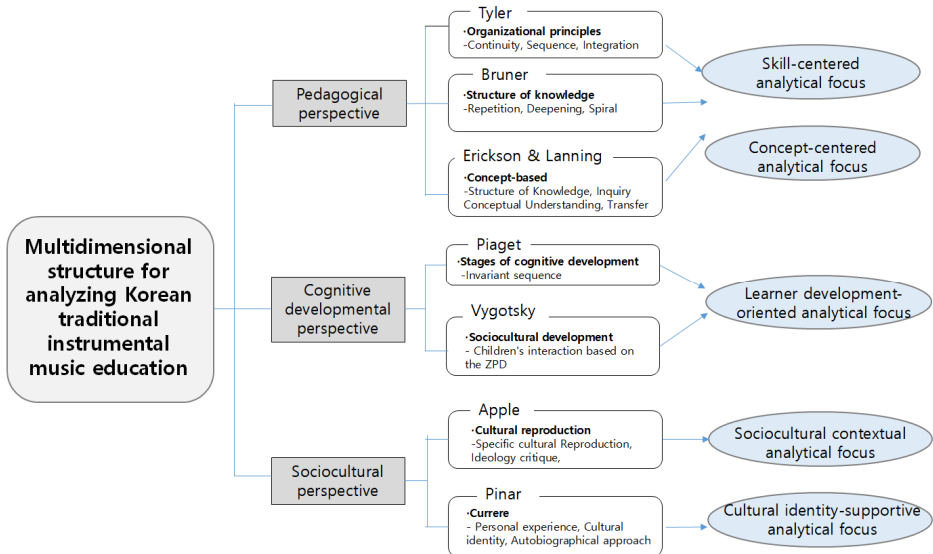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Sociocultural contextual analytical focus, SC)은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맥락을 반영하여 제시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을 의미한다. 앞서 애플은 학교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화의 재생산을 강조함을 언급하였다. 국악 교육이 역사와 동고동락하며 성장하고 위축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악 기악 교육 역시 애플의 주장처럼 특정 시대나 문화, 기성세대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은경(Jung, 2005)의 언급처럼 서양 악기 교육과 비교했을 때 국악기의 종류와 수반 활동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에서는 국악기와 기악 활동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나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지, 국악 기악 활동과 자료가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서양 중심 음악관이 국악 기악 교육을 종속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내용과 활동을 해석한다.

5)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Cultural identity-supportive analytical focus, CI)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삶의 경험, 문화적 맥락, 그리고 국악과의 관계 맺기를 성찰하고 지원하는 교육적 단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을 의미한다. 이 초점은 피나르의 쿠레레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되, 국악 기악 교육이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을 실제로 형성하거나 내면화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쿠레레 관점에서 볼 때, 교육에서의 개인적 경험은 교과서 내용 자체에 내재한다기보다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분석 초점은 문화 정체성 형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기보다 국악 기악 활동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문화적 위치와 의미를 성찰하는 질문과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은 교과서가 국악을 외부 문화가 아닌 나의 문화로 성찰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분석 초점은 서로 독립적인 위계라기보다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병렬적 분석 관점이다. [Figure 1]은 이러한 분석 초점들이 어떠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도식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기능, 개념, 학습자 발달, 사회문화적

맥락, 문화 정체성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분석 초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Note. Gugak refers to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Figure 1] Multidimensional structure for analyzing Gugak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III.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학교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다차원적 구조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음악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되,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학교급의 균형 있는 분석을 위해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과목 중 <음악> 과목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초등 5~6학년 음악 교과서는 현재 시점에서 검정 심사본이 제공되고 있는데, 초등 3~4학년과의 분석 연계를 고려하여 확정된 초등 3~4학년 음악 교과서와 동일 출판사 7종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초등 음악 교과서 7종(3~6

학년) 28권, 중학교 음악 교과서 14종 28권, 고등학교 일반 선택 <음악> 교과서 11종 11권, 총 32종 67권의 교과서이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에 기반한 문헌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내용 분석은 자료에 담겨있는 정보를 토대로 연구 질문에 답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범주화하고 해석하는 분석 절차를 포함하며, 세부적으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 있다 (Ji, 2024).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설정한 다차원적 분석 구조를 준거로 하는 연역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의 반복적 제시 양상과 특징을 반영하여 분석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틀을 설정한다. 분석의 기본 틀은 ① 기능 중심 분석 초점, ② 개념 중심 분석 초점, ③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 ④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 ⑤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 등 앞 장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분석 초점이다.

둘째, 분석 범위 및 단위를 설정하고, 1차 코딩을 수행한다. 분석 범위는 국악기 연주하기, 국악기로 반주하기, 국악 기악곡 감상하기, 만든 음악을 국악기로 표현하기 등 음악 교과서 내 국악 기악 관련 내용이고, 분석의 기본 단위는 활동, 국악기명, 음악 요소, 장르, 지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분석 초점에 따라 세분화된 분석 질문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세부 활동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고, 분석 초점에 따라 1차 코드를 부여하였다. 1차 코딩 시트는 학교급, 학년, 출판사, 분석 범위, 세부 활동(의미 단위), 분석 준거로 구성되며, 세부 활동에는 운지, 호흡, 장단 등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분석 초점을 실제 교과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의 제시 방식과 구성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분석 초점별로 반복해서 관찰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국악 기악 활동의 제시 양상과 조직 논리를 토대로 분석 초점별 분석 준거와 코딩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셋째, 1차 코딩된 자료를 분석 초점별로 분류하고, 2차 코딩과 범주화를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1차 코딩을 통해 구축된 의미 단위별 자료를 다섯 가지 분석 초점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각 분석 초점의 준거에 따라 2차 코딩을 하여 세부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후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코드는 통합하여 범주화함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넷째, 분석 초점별 결과를 도출하고, 학교급 간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Table 1> Analytical focus: analysis criteria and coding standards

Code number	Skill-centered analytical focus (SK)	Concept-centered analytical focus (CO)	Learner development-oriented analytical focus (DO)	Sociocultural contextual analytical focus (SC)	Cultural identity-supportive analytical focus (CI)
1	Repetition	Formation	Appropriateness	Context	Students' local culture
2	Progression	Repetition & expansion	Task Difficulty	Western-centricity	Meaning-making
3	Integration	Generalization	Interaction	Diversity	Succession & recreation
4	Cumulative experience	Application & transfer	ZPD potential	Cultural specificity	Identity reflection

해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차원적 구조에 따른 국악 기악 교육의 특징과 의미를 해석하고, 학교급 간에서 비교 분석하여 학교 국악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 초점별 결과를 종합하여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관점에서 강조되고 조직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악 기악 교육 내용 구성 및 교수·학습 설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문헌 연구로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준거와 코딩 기준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분석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연구자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악 교육 전공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석 틀과 범주화 기준의 타당성과 국악 교육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일부 기준을 보완하여 수정하였다.

IV. 음악 교과서 내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의 다차원적 분석 결과

본 장은 앞 장에서 설정한 다차원적 구조에 따라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교육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선택, 조직, 배열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악기별 상이한 학습 구조와 발달 논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떤 분석 초점에 의해 강조되어 구성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1. 초·중등 음악 교과서 내 국악 기악 교육 내용 현황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기는 단일 국악기 연주, 합주, 그리고 에듀테크 기반 가상 국악기 활용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때, 생활 물체로 만든 악기와 연주, 반주, 합주와 같은 연주 활동에 실제로 제시되지 않은 국악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 Status of Gugak instrument presentation by grade cluster (N, %)

Grade cluster	Solo performing								Group performing			Edutech	Total
	So go	Jang gu	Dan so	So geum	Gaya geum	Sori buk	Buk *	Other **	Pung mul	Gugak ensemble	Cross over	Virtual Gugak instrument	
Grades 3-4	25	66	•	•	•	•	•	5	9	1	4	4	114
	96(84.2)								14(12.2)				
Grades 5-6	7	42	43	29	•	•	•	•	10	9	4	7	151
	121(80.1)								23(15.2)				
Middle school	•	59	29	27	18	12	6	3	20	6	4	10	191
	151(79)								21(21.8)				
High school	•	26	11	18	10	8	•	1	9	9	3	1	96
	74(77)								21(21.8)				
Total	32	193	83	71	28	20	6	9	48	25	15	22	552
	442(80)								88(16)			22(4)	

* Nanta Buk (1), Modum Buk (5)

** Grades 3-4: Hyangbal (5), Middle school: Geomungo (2), Haegeum (1), High school: Haegeum (1)

국악기는 단일 국악기가 총 552회 중 442회(80%) 제시되어 있었다. 단일 국악기는 소고, 장구, 단소, 소금, 가야금, 소리북, 북(난타북, 모듬북) 거문고, 해금, 향발 등 총 10종이 수록되었으며, 그중 모든 학년군에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193회로 단연 장구이다. 악기 분류에서 보면, 국악기 중 타악기가 5종으로 가장 많고, 관악기 2종, 현악기 3종으로 나타난다. 초등 3-4학년군은 타악기 중심, 초등 5-6학년군은 타악기와 관악기 중심, 중학교와 고등학교군은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가 고루 제시되었다. 특히 중학교군은 총 8종의 국악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주는 국악기로만 구성된 연주와 국악기, 서양 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크로스오버 연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악기로만 구성된 연주는 전통적인 풍물놀이 형태와 기악 합주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합주는 풍물놀이 형태가 48회, 국악 합주 형태 25회, 크로스오버 형태 15회이며, 풍물놀이 형태가 연주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년군별로 살펴보면, 초등 3-4학년군은 풍물놀이 형태가 많고, 초등 5-6학년군부터는 풍물놀이, 국악 합주 형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기반 가상 국악기는 총 22회 중 중학교군에서 10회 제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고등학교군은 1회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초·중등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은 악기 연주하기, 반주하기, 감상곡과 관련하여 국악기 활용하기, 창작 작품을 국악기로 표현하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tatus of Gugak instrument activities by grade cluster (N, %)

Grade cluster	Performing			Accompanying			Utilizing Gugak instruments in appreciation pieces			Expressing creative works with Gugak instruments			Total
	A	B	C	A	B	C	A	B	C	A	B	C	
Grades 3-4	64	8	3	23	6	•	1	2	•	9	1	1	118
	75(63.6)			29(24.6)			3(2.5)			11(9.3)			
Grades 5-6	113	16	6	15	1	1	4	1	1	7	2	6	173
	135(78)			17(9.8)			6(3.5)			15(8.7)			
Middle school	100	27	5	36	•	1	6	3	1	17	2	4	202
	132(65.3)			37(18.3)			10(5)			23(11.4)			
High school	21	46	1	23	•	•	2	1	•	6	•	•	100
	68(68)			23(23)			3(3)			6(6)			
Total	298	97	14	97	7	2	13	7	2	39	5	11	593
	409(69)			106(17.9)			22(3.7)			55(9.3)			

※ A refers to solo instrumental performance, B refers to ensemble performance, and C refers to virtual Gugak instruments

악기 연주하기 활동은 전체 국악 기악 활동 593회 중 409회(69%)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악 기악 교육의 핵심이자 본질이 연주 활동임을 보여준다. 반주하기 활동은 ‘노래에 맞추어’ 또는 ‘반주하기’로 제시된 활동을 의미하며, 모든 학년군에서 단일 국악기로 반주하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작 작품을 국악기로 표현하기 활동도 반주하기 활동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한편, 감상곡과 관련하여 국악기 활용하기 활동은 네 가지 활동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악기 및 활동 유형 분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초·중등 음악 교과서의 국악 기악

교육은 단일 국악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타악기 중심에서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가 고루 제시되고, 합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악 기악 활동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연주 활동에 중점을 두되,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점차 합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악 기악 교육이 노래, 창작, 감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악 기악 교육의 핵심이 여전히 연주 활동에 있음을 재확인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조직되고 강조되고 있는지는 단순 빈도나 유형 분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다섯 가지 분석 초점에 따라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초점별 결과

다섯 가지 분석 초점에 따른 분석은 국악 기악 활동을 의미 단위로 하여 초등 3·4학년 군 118개, 초등 5·6학년군 173개, 중학교군 202개, 고등학교군 100개, 총 593개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능 중심 분석 초점

기능 중심 분석 초점(SK)은 국악 기악 활동이 음악 교과서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초점으로 기능 반복 제시(SK1), 기초에서 응용으로 난이도 상승(SK2), 다른 영역과의 통합(SK3), 학습 경험의 누적 설계(SK4)의 네 가지 하위 분석 기준으로 구성된다.

SK1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이 학년 내 또는 여러 학년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기준으로 악기의 구조, 자세, 주법, 호흡 등 악기를 다루기 위한 기초 기능이 반복해서 제시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SK1-1] 장구로 세마치장단을 치며 연주해 보자(초등 3학년 음악, 동아)
- [SK1-2] 노래에 맞추어 세마치장단을 연주해 보자(초등 6학년 음악, 지학사)
- [SK1-3] 장구로 세마치장단을 연습해 보고, ‘우리 장단 배워 보자’를 연주해 보자(중학 교 음악 1, 금성)
- [SK1-4] 장구의 연주 자세를 익혀 세마치장단을 치며 연주해 보자(고등학교 음악, YBM)

위 교과서 사례는 장구로 세마치장단 연주하는 동일한 기초 기능이 초등학교부터 고

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년군별로 음악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시 양상은 SK1이 국악 기악 활동의 반복적 배열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K2는 SK1에 비해 더 복잡하거나 발전·변형·확장된 기능 요소가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바탕으로 장단의 세를 살리거나 다양한 장단을 연주하거나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연주하기, 곡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기, 어울림을 느끼며 합주하기 등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새롭게 제시되거나 기능 요소가 확장·심화되어 제시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SK2-1] 세마치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로 연주해 봅시다(초등 5학년 음악, 천재)
- [SK2-2] 자세와 연주법을 익혀 노래와 함께 여러 가지 장단을 익혀보자(중학교 음악 1, 아침나라)
- [SK2-3] 한배를 점점 빠르게 하여 연주해 보자(고등학교 음악, 미래엔)

위 사례는 장구의 기본자세와 연주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장단 연주부터 여러 장단으로 범위 확대, 국악 요소의 표현 강조, 한배의 변화 등으로 기능 요소가 점진적으로 확장·변형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시 양상은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의 난이도 조직 방식을 분석하는 데 SK2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SK3은 기악 활동이 노래, 창작, 감상, 신체 표현, 춤 등 다른 영역과 통합되어 제시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기준으로 기악 활동이 다양한 음악 활동 또는 다른 음악 영역과 결합하여 학습 경험이 확장되도록 조직된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SK3에 해당하는 교과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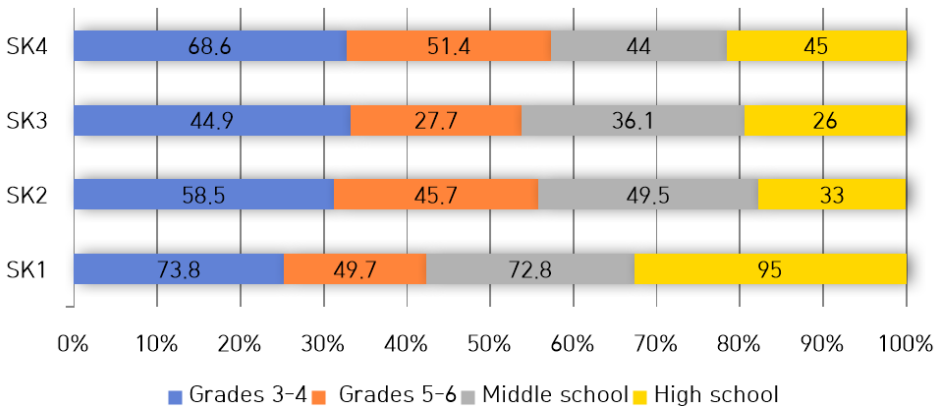
- [SK3-1] 노래를 부르며 소고춤을 추어 봅시다(초등 3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 [SK3-2] 나만의 장단을 만들고 연주해 봅시다(초등 6학년 음악, 지학사)
- [SK3-3] <BTS 아리랑>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 연주하고 아리랑 홍보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활용해 보자(중학교 음악 1, 천재)
- [SK3-4] 장단을 치며 <타령>을 감상해 보자(고등학교 음악, 박영사)

위 활동은 노래 부르기와 소고 연주, 창작하기와 장구 연주, 매체 활용, 감상하기와 장구 연주 등 다양한 음악 활동 영역과 결합한 예시로 이러한 제시 양상은 국악 기악 활동이 교과서 내에서 통합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SK3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SK4는 같은 악기 또는 유사한 기능이 이전 학년 경험과 연계되어 다음 학년에서 반복·심화하여 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 기준이다. 이는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학습 경험이 누적되고 점차 복합적인 활동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SK4-1] 정간보를 보고 <만파식적> 노래의 일부를 단소로 연주해 봄시다(초등 5학년 음악, YBM)
- [SK4-2] 다양한 시김새를 표현하며 장단에 맞추어 소금으로 연주해 보자(중학교 음악 1, 교학사)
- [SK4-3] 소리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소금, 가야금, 장구로 합주해 보자(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위 사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악기 연주 경험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며 점차 표현 요소가 확대되고 활동의 복합성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시 양상은 국악 기악 활동이 학년군에 따라 점진적으로 심화·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SK4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Figure 2] Gugak instrumental Education based on the skill-centered analytical focus (SK)

[Figure 2]는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국악 기악 활동 593개 중 기능 중심 분석 초점의 네 가지 분석 기준(SK1~SK4)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분석 기준이 학교군별로 어떠한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백분율 기준으로 비교한 누적 그래프이다. 초등 3·4학년군에서는 네 가지 분석 기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SK1의 비중이 다소 낮고 SK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 3·4학년군에서는 악기 학습을 위한 준비 활동과 노래, 감상, 창작 등 여러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기악 경험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전 학년에 비해 SK1의 비중이 감소하고 SK2와 SK4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단소와 소금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장구와 소고의 기능 반복보다 관악기 학습을 위한 바른 자세, 호흡, 운지 등 준비 활동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SK4의 비중 증가는 초등 3·4학년군의 교과서에 제시된 소고 또는 장구 연주 활동이 이후 학년군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거나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교군에서는 SK1과 SK2가 다시 늘어나고 SK4가 감소되었다. 중학교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과 같은 현악기와 소리북, 난타북, 모듬북 등 새로운 국악기가 등장했음에도 SK1이 증가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국악기와 관련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국악기 활동과 유사한 기능 요소가 반복해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인해 SK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기악 활동이 SK1에 해당하였으며, 이 또한 중학교군과 마찬가지로 기본 기능 중심의 기악 활동이 주로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개념 중심 분석 초점

개념 중심 분석 초점(CO)은 기악 경험을 통해 어떠한 국악 개념이 교육 내용의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이를 통해 국악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으로 국악 개념 형성(CO1), 개념의 반복 및 확장(CO2), 국악의 원리 이해 및 일반화 도출(CO3), 새로운 상황이나 생활에 적용(CO4)의 네 가지 하위 분석 기준으로 구성된다.

CO1은 교과서에 악기 연주 경험과 연계하여 장단, 한배, 시김새, 음색 등 국악 개념이 제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념 요소가 함께 제시되고, 악기 연주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CO1에 해당하는 교과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CO1-1] 박에 맞추어 향발을 연주해 봅시다(초등 3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 [CO1-2] <아리랑>을 울명으로 불러 보고,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초등 5학년 음악, YBM)
- [CO1-3]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을 치며 한배의 변화를 느껴보자(중학교 음악 1, 박영사)
- [CO1-4] 소리북의 구조를 알아보고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쑈대머리>를 불러 보자(고등학교 음악, 금성)

교과서 사례를 보면, 국악 기악 활동이 연주 기능의 수행과 함께 박, 장단, 한배 등 국악의 기본 개념을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시 양상은 기악 경험이 국악 개념 이해를 위한 학습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CO2는 이전에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개념이 다양한 기악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악기, 곡, 장단을 중심으로 확장 제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악 활동을 통해 형성된 국악 개념이 단일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활동과 맥락 속에서 재등장하며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CO2-1] 한배에 맞게 소고로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불러 봄시다(초등 4학년 음악, 동아)
- [CO2-2] 다양한 장단의 한배를 살려 연주해 보자(중학교 음악 2, 교학사)

위의 교과서 사례와 같이, 장구, 소고 연주 활동에서 장단과 한배 개념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연주 방식과 적용 상황이 확장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악 개념이 다양한 기악 활동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심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CO2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CO3는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개념을 바탕으로 국악의 구조적 원리나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악 활동과 연계하여 국악의 기보 체계, 장단, 국악 원리 등이 탐구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CO3-1] 정간보 읽는 법을 익히고, 읽는 순서에 맞게 율명 붙임박지를 붙여 봄시다(초등 5학년 음악, 음악과 생활)
- [CO3-2] 정간보를 알아보고, <율명풀이>를 불러 봄시다(초등 5학년 음악, 비상)

첫 번째 교과서 사례는 단소 연주 활동과 함께 정간보의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인물과 역사적 맥락을 시각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교과서 사례는 우물 그림과 함께 ‘정간보는 세종대왕이 만든 기보법으로 우물 정(井)자 모양의 칸에 율명을 적어요’라는 말주머니를 제시하여 정간보의 원리를 설명한다. 이러한 사례는 연주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악 개념을 기보 체계의 원리와 연결하여 기보 체계에 담긴 우리 음악 문화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국악 개념이 일반화된 이해로 확장되도록 구성된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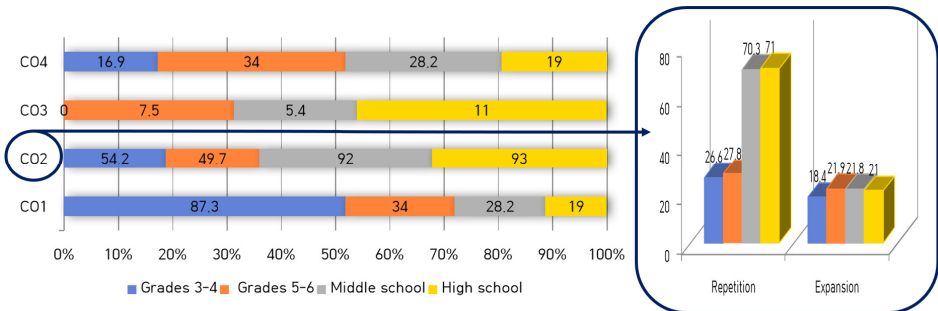
CO4는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개념이나 원리가 새로운 음악적 상황이나 생활 속 맥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은 국악

개념이 교과서 내 학습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 놀이,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어 활용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CO4-1] 가족 앞에서 단소로 <아리랑> 연주해 봅시다(초등 5학년 음악, 지학사)
- [CO4-2] 바꾼 노랫말로 받는 소리를 여러 악기로 연주하며 우리 반 지신밟기를 해 봅시다(초등 6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 [CO4-3]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장단꼴을 적어 굿거리장단의 변형 장단 만들어 국악 앱으로 연주해 보자(중학교 음악 1, YBM)
- [CO4-4] 다양한 악기(소금, 노래, 장구, 피아노)를 활용하여 공연 기획하여 발표해 보자(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위 사례는 개인 또는 공동체 활동에서의 연주 경험, 디지털 매체 활용, 새로운 연주 방식, 공연 기획 등 새로운 맥락 속에서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실제 연주 상황 속에서 체화된 개념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활용되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개념 중심 분석 초점에서 살펴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Gugak instrumental education based on the concept-centered analytical focus (CO)

[Figure 3]은 국악 기악 활동 593개 중 개념 중심 분석 초점의 하위 분석 기준(CO1~CO4)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학년군별로 비중을 백분율 기준으로 비교한 누적 그래프이다. 특히 CO2는 ‘개념 반복’과 ‘개념 확장’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본 그래프에서는 이 두 요소를 구분하여 비중을 누적한 그래프를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학년군별 개념 심화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 3·4학년군은 CO1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 3·4학년군의 교과서에는 박, 장단, 한배, 말붙임새, 어울림,

음색 등 여러 국악 개념이 연주 경험과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으나 CO3와 CO4와 같이 개념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거나 다른 맥락과 연결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 5-6학년군은 전 학년에 비해 CO1의 비중이 감소하고 CO3와 CO4에 해당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 학년군에서는 율명, 한배의 변화, 토리와 같은 국악 개념이 다양한 기악 활동과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었으며, 전 학년에 비해 새롭게 제시되는 국악 개념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이전 학년군에서 제시된 개념이 반복되거나 확장되어 활용하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 학년군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던 CO3와 CO4에 해당하는 활동이 제시됨으로써 초등 5-6학년군의 교과서에서는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 새로운 음악적 상황이나 생활 속 맥락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군은 CO2가 압도적이다. [Figure 3]의 CO2의 세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학년군에서는 기악 활동과 연계하여 새롭게 개념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에 제시된 개념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기악 활동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군에서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 새로운 국악기가 도입되어 다양한 기악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CO3과 CO4의 비중이 감소한 점은 새로운 국악기 학습이 개념의 심화, 확장, 다른 맥락과의 연결보다는 기존 개념의 반복 제시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교군에서는 CO2와 CO3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 학년군에서도 중학교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시된 개념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부 활동에서는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구조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CO3의 비중은 모든 학년군에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과서에서 개념의 일반화를 중심으로 한 활동 제시는 극도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CO4 역시 학년군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개념을 다른 맥락과 연결하는 활동이 에듀테크 활용 상황, 크로스오버 연주 상황 등 특정 환경에만 치우쳐 제시되는 경향을 보여 기악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생활 맥락과의 연결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3)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DO)은 국악 기악 교육에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음악 교과서의 기악 활동 구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으로 피아제가 제시한 발달 단계의 적절성(DO1), 발달에 적합한 과제 난이도(DO2), 교사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환경(DO3), 근접발달영역에 기반한 조력 가능 과제 제시(DO4)의 네 가지 하위 분석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분석 초점은 앞의 기능 중심 및 개념 중심 분석 초점과 달리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누적되는 구조가

아니며, 학년군별로 네 가지 분석 기준이 어떠한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DO1은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해당 학년군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군에서는 직접적인 조작 활동 중심의 기악 활동이 제시되는지, 중·고등학교군에서는 추상화된 개념 이해나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기악 활동이 제시되는지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활동 제시 양상을 분석한다. 음악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학년군의 발달 수준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의 학습 내용과 활동의 난이도를 설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필 신뢰도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제시된 모든 기악 활동이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O2는 교과서에 제시된 기악 활동이 해당 학년군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과제 난이도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DO1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 난이도가 학년군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복잡적으로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 3·4학년군에서는 발달 수준에 부적합한 활동을 찾을 수 없었다. 초등 5·6학년군에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악 합주 활동이 일부 확인되었다.

- [DO2-1] 여러 가지 타악기(소고, 캐스터네츠, 탬버린, 카바사, 트라이앵글)로 기악 합주하기(초등 5학년 음악, 동아)
- [DO2-2]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기악(리코더, 멜로디언, 징, 향발, 큰북, 작은북)합주하기(초등 5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위의 두 가지 사례는 기악 합주하기 활동이다. 첫 번째는 1개의 국악 타악기와 4개의 서양 타악기로 이루어진 타악기 합주이고, 두 번째는 2개의 국악 타악기, 2개의 서양 타악기, 2개의 서양 가락 악기로 이루어진 기악 합주이다. 이는 다양한 음색과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음악적 경험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특히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함께 활용한 구성은 서로 다른 음악 문화의 소리와 표현 방식을 비교·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초등 5·6학년군의 음악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 문화의 구조와 연주 방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인지적·음악적 부담을 줄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다.

중학교군에서는 국악 기악 활동 202개 중 10개가 발달 수준에 부적합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 [DO2-3] 재활용품으로 소고 만들고 만든 소고로 노래 부르며 연주하기(중학교 음악 2, 성안당)
- [DO2-4]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하여 굿거리장단을 치며 노래 부르기(중학교 음악 2, 박영사)
- [DO2-5] 노도 만들기(중학교 음악 2, 박영사)

교과서에 제시된 ‘재활용품으로 연주하기’,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하여 굿거리장단을 치며 노래 부르기’, ‘소고, 노도 만들기’ 등과 같은 조작 활동은 중학교 학습자의 음악적 사고 수준이나 형식적 사고를 요구하는 학년군의 특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할 수 있다.

고등학교교과에서도 중학교교과와 마찬가지로 ‘대취타의 연주 악기와 음색이 비슷한 생활 도구를 활용하여 연주하기’와 같이 조작 중심의 단순한 활동이 4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악을 친숙한 도구를 통해 경험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과제의 인지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음 교과서 사례는 중·고등학교교과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과제로 주목할 만하다.

- [DO2-6] 3소박에 다양한 의성어를 붙이고 모듬을 구성하여 친구들과 불러 보며 리듬을 익히기(중학교 음악 2, 금성)

이 활동은 집합론적 관점에서 소박과 박을 파악하고, 말의 길고 짧음에 유의하여 의성어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를 만들기 위해 논리적 사고와 추상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중·고등학교교과의 국악 기악 활동이 발달 수준을 고려한 과제 난이도로 일관되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DO3는 교과서에 제시된 기악 활동이 교사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아래의 교과서 사례처럼 국악 기악 활동에 ‘짜과 함께’, ‘모듬을 나누어’, ‘함께’, ‘주고받으며’ 등과 같은 표현이 제시된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 [DO3-1] 소고의 바른 자세와 주법을 익히고 소고 장단을 만들어 주고받으며 연주하기(초등 3학년 음악, 지학사)
- [DO3-2] 친구와 함께 서로의 연주 자세 점검하기(초등 5학년 음악, 동아)
- [DO3-3] 악기별로 모듬을 나누고 구름으로 인사굿 가락 연주하기(중학교 음악 2, 금성)

학년군별 국악 기악 활동에서 CD3의 활동 빈도와 비중을 보면, 초등 3·4학년군에서는

19개(약 16.1%), 초등 5-6학년에서는 20개(약 11.6%), 중학교군에서는 34개(약 16.8%), 고등학교군에서는 18개(18%)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든 학년군의 교과서에서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국악 기악 활동이 일정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개별 악기의 기능 습득에 한정하지 않고, 협력적 연주 경험과 공동체 역량을 고려한 학습 환경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O4는 교과서에 제시된 기악 활동이 교사 또는 동료의 조력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은 학습자가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협력적 상호작용이나 단계적 안내를 통해 해결하도록 조직한 기악 활동의 제시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DO4에 해당하는 교과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DO4-1] 진풀이를 익혀 합주하기(중학교 음악 2, 성안당)
- [DO4-2] 국악 종소리를 만들어 장단, 합주하기(중학교 음악 2, 성안당)
- [DO4-3] 다양한 악기(소금, 노래, 장구, 피아노)를 활용하여 공연 기획하여 발표하기(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이 사례들은 협력적 상호작용이나 조력을 전제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기악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 또는 동료의 안내와 협력을 통해 과제로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DO4에서 설정한 조력 기반 수행 기준과 대응한다. DO4의 활동 빈도와 비중을 보면, 초등 3-4학년군에서는 21개(약 17.8%), 초등 5-6학년군에서는 36개(약 20.8%), 중학교군에서는 55개(약 27.2%), 고등학교군에서는 21개(약 21%)가 나타났다. DO4는 학년군에서 20~30%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서에서 조력을 통해 기악 활동이 지속해서 일정 부분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SC)은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교과서 안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맥락을 반영하여 제시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나 맥락 반영(SC1), 서양 중심 음악관 반영(SC2), 문화적 다양성(SC3), 특정 문화나 계층 비중(SC4)의 네 가지 하위 분석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분석 초점은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과 마찬가지로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누적되는 구조가 아니며, 네 가지 분석 기준이 어떠한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SC1은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우리 음악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국악은 의례, 노동, 놀이 등 삶의 여러 장면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함께 발전해 온 문화적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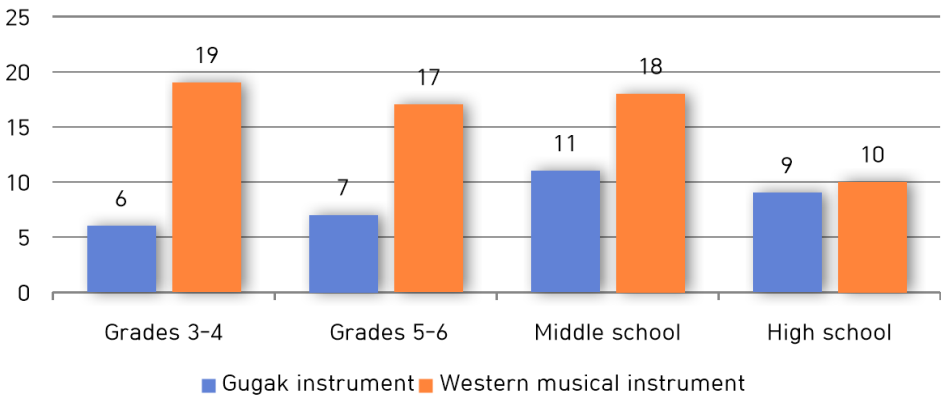
이다. SC1은 음악 교과서 속 국악 기악 활동에서 이러한 가치와 맥락을 반영하였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이 분석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은 전체 593개 중 150개로 약 25.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교인이 37개(3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SC1은 세부적으로 전통적 맥락을 반영한 활동과 현대적 맥락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 [SC1-1] 제주에서 사용하는 민속 악기를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물체 악기로 따라 연주하기(중학교 음악 1, 비상)
- [SC1-2] 교실에서 구하기 쉬운 악기로 문묘제례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악작과 악지를 합주하기(중학교 음악 2, 박영사)
- [SC1-3] 음악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향발무 추가(초등 3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 [SC1-4] 주법을 살려 <취타> 합주하기(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SC1-1]과 [SC1-2]는 제주의 음악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하여 장단 치며 노래 부르기, 교실에서 구하기 쉬운 악기로 문묘제례악 표현하기 등 전통적 맥락을 반영하여 원래 지닌 가치를 교실 속에서 재연한 활동이고, [SC1-3]과 [SC1-4]는 향발무를 추며 가무악의 통합적 성격을 이해하고, 여러 국악기로 <취타>를 합주하여 정악이 지닌 사회·문화적 맥락과 전승 방식을 이해하도록 구성한 활동이다. 모든 학년군에서는 전통적 맥락에 해당하는 활동이 현대적 맥락에 해당하는 활동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 교과서에서 국악 기악 활동이 우리 음악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시 양상은 전통적 맥락에 비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다양한 현대적 맥락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고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특히, 고등학교 <음악> 과목은 초·중학교 음악 활동을 종합하고 보다 다양화한다는 교육과정의 성격(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2024)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교인의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시대 반영과 맥락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SC2는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서양 중심의 음악적 관점과 어떠한 방식으로 병치하거나 결합하여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서양 음악 관점이 국악 기악 활동에 반영된 교과서 사례는 여러 학년군에서 발견된다. 초등 5·6학년군의 여러 타악기로 기악 합주하기 활동은 국악기(소고) 1개, 서양 악기(캐스터네츠, 탬버린, 카바사, 트라이앵글) 4개로 국악기와 서양 타악기가 함께 제시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구성 비율상 서양 타악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례이다. 중학교교인에서는 소고, 팽과리, 장구, 북, 징 중 하나의 악기를 선택하여 삼채장단을 만들어 연주하기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이 활동은 ‘친구들과 불러 보며 리듬을 익혀 보자’와 같이 국악 개념보다는 리듬과 같이 서양 음악 문법에 맞추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Figure 4]와 같이 음악 교과서에 국악기보다 서양 악기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제시되는 경향과도 맞물려, 학습자의 악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서양 악기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Figure 4] Number of Gugak and western musical instruments presented by grade cluster in music textbooks

[Figure 4]는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기악 활동 중 학습자가 1회 이상 경험할 수 있는 악기를 국악기와 서양 악기로 구분하여 수치로 제시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모든 학년군에서는 국악기에 비해 서양 악기의 수가 많으며, 특히 초등학교군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이는 음악 교과서에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악기 종류가 서양 악기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초등학교군에 해당하는 어린 학습자가 국악을 접할 기회가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SC3은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이 문화적 다양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며, SC4는 국악 기악 활동이 특정 문화, 특정 지역, 특정 사회계층의 음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두 분석 기준은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되었으나 문화적 다양성과 편중성이라는 관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연관된 분석 틀을 형성한다. 즉, SC3이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의 다양성 제시 양상을 살펴보는 동전 한 면이라면, SC4는 이러한 다양성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불균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동전의 다른 면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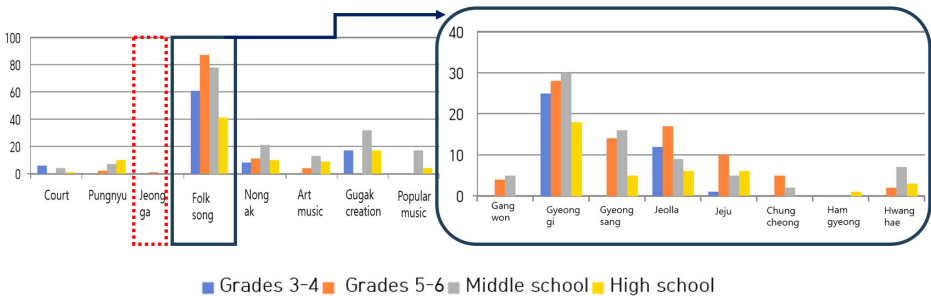
<Table 4>는 SC3의 관점에서 국악 기악 활동의 제재곡을 장르와 지역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이다. 국악 기악 활동의 장르는 크게 정악, 민속악, 창작으로 범주화하였고, 지역성은 민속악 중 민요, 풍물, 판소리 같이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르를

행정구역(도) 단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년군의 교과서에서 여러 장르의 곡과 지역 기반의 다양한 민속 악곡이 기악 활동의 제재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군에서는 8개의 행정구역(도) 중 7개의 지역 음악이 제시되어, 지역 음악 문화를 비교적 폭넓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 Frequency of musical pieces by grade cluster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ity

Grade cluster	Genre				Regionality of folk music								
	Classical	Folk	Creative	Total	Gang won	Gyeong gi	Gyeong sang	Jeo lla	Jeju	Chung cheong	Hamg yeong	Hwang hae	Total
Grades 3-4	6	69	17	92	·	25	·	12	1	·	·	·	38
Grades 5-6	3	102	25	130	4	28	21	17	10	5	·	2	87
Middle school	11	112	49	172	5	30	26	19	5	3	·	7	95
High school	11	60	21	92	·	21	14	9	6	3	1	3	57
Total	31	343	112		9	104	61	57	22	11	1	12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 제시에는 평균의 함정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여러 장르와 지역이 고르게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Figure 5]와 같이 SC4의 관점에서 국악 기악 활동 제재곡의 장르 구성과 민요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특정 장르나 특정 지역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제시되는 문화 쏠림 현상이 확인된다.



[Figure 5] Genre distribution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folk songs of musical pieces for Gugak instrumental activities

국악 기악 활동 제재곡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민속악 중 민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악 역시 모든 학년군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 정악에 속하는 정가는 기악 제재곡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고 있었다. 민요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모든 학년군에서 경기도 민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라도 민요가

주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 강원도와 충청도 민요는 두 학년군에서만 확인되었으며, 함경도 민요는 교과서 기악 활동 제재곡으로 거의 제시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국악 기악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제시되는 방식과 실제 제재곡의 분포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특정 장르나 지역 음악이 반복해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CI)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학습자의 삶의 경험, 문화적 맥락, 그리고 국악과의 관계 맺기를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단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 초점으로 학습자의 지역 문화와 생활 배경 반영(CI1), 의미 형성 가능성(CI2), 계승과 재창조의 제시 양상(CI3), 문화 정체성 성찰을 유도하는 활동 제시(CI4)의 네 가지 하위 분석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분석 초점은 문화 정체성의 실제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피나르의 쿠레레 개념을 교육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렌즈로 한정하여 활용한다. 또한, 이 분석 초점도 발달의 누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으며, 네 가지 분석 기준이 교과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CI1은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학습자의 지역 문화, 생활 배경, 지역 공동체의 음악적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교 밖 지역 사회의 음악 문화 환경과 국악 기악 활동을 연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 [CI1-1] 친구들과 함께 학교와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기악 합주하기(초등 5학년 음악, 동아)
- [CI1-2] 사물놀이를 연습하며 학급, 학교,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중학교 음악 1, 교학사)
- [CI1-3] 학급별로 사물놀이를 연습하여 학교 또는 지역 행사에서 연주하기(고등학교 음악, 아침나라)

CI의 교과서 사례를 보면, 초등 3·4학년군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군에서는 ‘지역 문화에 참여하기’와 같은 활동이 한두 개씩 나타났다. 교육 속 개인적 경험이 갖는 힘을 강조하는 쿠레레를 해석 렌즈로 적용해 볼 때, 이러한 제시 양상은 국악 기악 활동과 학습자의 일상적 경험 간의 연결이 제한적으로나마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I2는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학습자가 국악을 나의 경험과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적 단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이 기준은 학습자가 실제로 국악을 내면화하거나 정체성을 형성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학습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선택, 표현, 상호작용을 통해 국악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교과서 활동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 [CI2-1] 모듬별로 소고춤을 만들어 발표하기(초등 4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 [CI2-2] 시김새를 활용하여 단소로 타령 연주하고 서로 평가하기(중학교 음악 1, 박영사)

위 사례들은 정해진 연주 방식이나 결과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표현 방식을 구성하거나 해석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도록 활동이 설계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활동 구성은 국악 경험을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된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국악 활동을 연결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CI2의 분석 기준과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학년군별 국악 기악 활동에서 CI2의 활동 빈도와 비중을 보면, 초등 3-4학년군에서는 90개(약 76.2%), 초등 5-6학년군에서는 79개(약 45.7%), 중학교군에서는 106개(약 52.5%), 고등학교군에서는 59개(59%)가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학년군의 교과서에서 국악 기악 활동이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되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활동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I3은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우리 문화를 계승하는 방식과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CI3에 해당하는 활동은 전체 593개 중 119개로 약 2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군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 기준은 문화를 계승하는 활동과 문화를 재창조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 [CI3-1] 풍물놀이에 사용되는 삼채장단 악기로 연주하기(초등 5학년 음악, YBM)
- [CI3-2] 종묘제례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생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중학교 음악 1, YBM)
- [CI3-3] 새타령의 일부분을 가야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초등 6학년 음악, 아이스크림미디어)
- [CI3-4] 소리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해피니스> 크로스오버 합주하기(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CI3-1]과 [CI3-2]는 기존의 우리 음악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거나 재연함으로써 전통을 이어가는 활동으로 96개(약 14%)가 있고, [CI3-3]과 [CI3-4]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표현하거나 해석, 창작되어 학습자가 국악을 확장하여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활동으로 23개(약 3.9%)가 있다. 이러한 분포는 교과서에서 국악 기악 교육이 전통의 계승과 재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창조적 접근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CI4는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이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성찰하고 국악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다.

- [CI4-1] 소고를 연주해 본 경험 이야기하기(초등 3학년 음악, 지학사)
- [CI4-2] 합주하며 함께 표현하는 음악의 즐거움 느끼기(중학교 음악 1, 천재)

이 사례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악 기악 경험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 정체성이 실제로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라기보다 정체성 성찰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단서로 해석된다. 학년군별 국악 기악 활동에서 CI4의 활동 빈도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분석 기준에는 초등 3-4학년군에서 2개(약 1.7%), 초등 5-4학년에서 9개(약 5%), 중학교군에서 5개(약 7.5%), 고등학교군에서 4개(약 4%)가 나타나 그 비중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의 국악 기악 활동에서 문화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나 가치·태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 국악 교육 내용을 여러 분석 초점이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다차원적 구조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기능 중심의 기악 교육을 넘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대상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32종 67권이며, 총 593개의 국악 기악 활동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기악 활동을 추출한 뒤, 기능 중심, 개념 중심, 학습자 발달 고려, 사회문화적 맥락, 문화 정체성 지원의 다섯 가지 분석 초점을 기준으로 범주화하고, 내용 분석 기반의 문헌 연구로서 그 제시 양상을 질적으로 해석하였다.

다섯 가지 분석 초점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의 제시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능 중심 분석 초점에서 살펴본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기초 기능 반복 활동이 다수 제시되고 있었으며, 학년군 간 연계된 기능 확장이나 누적 설계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념 중심 분석 초점에서 살펴본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전 학년에 걸쳐 국악 개념의 제시와 반복에 해당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개념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거나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고 있었다. 셋째, 학습자 발달 고려 분석 초점에서 살펴본 결과,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대체로 학년군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었으나 일부 학년군에서는 과제 난이도 조절이나 활동 유형 측면에서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확인되었다. 한편, 모든 학년군에서 협력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기악 활동이 지속해서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초점에서 살펴본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우리 음악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맞게 구성된 활동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나 서양 중심의 국악 활동 구성이나 국악기와 서양 악기의 제시 비중, 제재곡 분포 등에서는 서양 음악 중심의 제시 양상과 특정 장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경향이 함께 나타났다. 다섯째, 문화 정체성 지원 분석 초점에서 살펴본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나 학습자가 자기 삶의 경험과 국악을 연결하여 성찰하거나 문화적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가치·태도 중심의 활동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을 위해 내용 구성 및 교수·학습 설계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은 기능 습득을 넘어 개념적 이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장단, 토리, 시김새 등 국악 요소를 다양한 맥락에서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악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군에서 발견된 발달에 부적합한 기악 활동을 보완하고,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학습자에게는 비교, 해석, 원리 파악 등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기악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 역량은 국악 교육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국악 기악 수업에서 개별 연주 경험뿐 아니라 모듬 창작, 합주, 지역 문화 행사 참여 등 학교 안팎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기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평가는 기능 중심의 결과 평가에서 벗어나 국악 개념 이해도, 문화적 맥락 인식, 문화 정체성 성찰 등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반영한 전인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화 정체성 관련 성찰은 학습자의 삶과 지역 경험을 교육과정 속에서 서사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의 국악 기악 학습 환경을 확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러 국악기 확보, 지역 음악 문화와의 연계, 에듀테크 기반 국악 콘텐츠 활용 등 포괄적 국악 교수·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 국악 기악 교육 내용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 접근은 학교 국악 기악 교육의 내용 구성과 제시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

며, 향후 국악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runer, J. S. (2017). *The process of education* (H. W. Lee, Trans.). Baeyoungsa.
- Chae, E. Y., Jung, J. Y., Jung, J. Y., & Jun, S. J. (2025). *Middle school music 1-2*. Kumsung Publishing.
- Chae, E. Y., Yoon, J. Y., Jo, S. H., Jung, J. Y., & Jung, J. Y. (2025). *High school music*. Kumsung Publishing.
- Cho, K. S., & Kim, M. H. (2016). Analysis of Korean musical instruments contained in elementary music textbooks and related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1), 95-127. <https://doi.org/10.20972/kjee.27.1.201603.95>
- Cho, S. G., Song, M. K., Jang, B. Y., Kim, K. T., Kwon, Y. S., & Park, Y. L. (2025). *High school music*. Mirae-n.
- Choi, E. A., Lim, Y. S., Choi, C. S., Kim, Y. J., Song, J. J., Baek, J. H., Heo, Y., Lee, H. S., & Yang, B. H.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 Chunjae Text.
- Choi, E. S., Kim, H. S., Ha, M. J., Kim, S. Y., Kang, H. S., & Lee, M. K. (2025). *Middle school music 1*. Chunjae Text.
- Choi, M. Y., Seok, M. J., Choi, Y. R., Jang, E. S., Park, J. M., Ryu, N. H., Jeong, J. H., & Kim, Y. J.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Dong-a Publishing.
- Choi, M. Y., Seok, M. J., Choi, Y. R., Park, J. M., Ryu, N. H., Jeong, J. H., Kim, Y. J., & Kim, D. G.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 Dong-a Publishing.
- Erickson, H. L., Lanning, L. A., & French, R. (2022). 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for the thinking classroom (J. D. Ohn, & J. Y. Yoon, Trans.). Hakjisa.
- Han, H. J. (2022).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s of Vygotsky's pedagogy: On the first grade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0(2), 127-150.
- Han, H. S. (2009). *Music cultur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he lens of musical instruments*. Chaeksesang.
- Han, Y. S. (2020). A study on the instruction of Korean musical instruments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music textbooks for high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Music*

- Education Research*, 14(1), 241-273. <https://doi.org/10.31177/SSKME.2020.14.1.08>
- Heo, J. M., Cheon, E. Y., Choi, C. J., Song, J. H., Jeong, G. M., & Oh, S. H.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 Jihaksa.
- Heo, J. M., Cheon, E. Y., Choi, C. J., Song, J. H., Oh, S. H., Kim, S. H., Moon, C. A., & Jeong, K. M.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6*. Jihaksa.
- Jeong, I. Y. (2014). Phased tutoring method for danso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reath.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8(2), 49-77.
- Ji, Y. J. (2024). A methodological exploration of docum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10(3), 25-56.
- Jo, S. Y., Han, Y. Y., Yoon, K. G., Chae, S. H., Kim, A. H., Byun, I. J., Kim, M. Y., Shim, Y. S., & Kang, Y. W.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6*. I-scream media.
- Jo, S. Y., Han, Y. Y., Yoon, K. G., Kim, M. J., Chae, S. H., Kim, A. H., Byun, I. J., & Kim, Y. A.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I-scream media.
- Jo, W. R. (2015). *An analytic study on the result of constructivism viewpoint museum education by contextual learning factor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Ju, D. C., Kim, H. J., Jo, K. S., Park, E. S., Jang, Y. J., Kim, H. S., Lee, Y. S., & Yoo, H. J.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 Visang Education.
- Jun, G. S. (2015).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Daegeum in conjunction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Studies on Korean Music Culture*, 6, 99-136.
- Jung, E. G. (2005).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Focusing on the Haegum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23, 127-153.
- Kang, M. S., Kim, H. S., Choi, J. H., Han, T. D., You, H. Y., Kim, I. Y., & Song, H. W. (2025). *High school music*. YBM.
- Kho, J. H. (2016). *Understanding of the 21st century curriculum*. Kyoyookbook.
- Kim, A. H. (2025). Exploring concept-based inquiry unit design for deep learning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10(1), 27-51.
- Kim, D. W., Whang, B. S., Kim, J. K., Kim, H. K., Jung, S. Y., Park, B. H., Park, S. J., Kim, K. A., Lee, Y. N., Seo, J. M., Eom, S. Y., Hong, J. S., & Lee, N. L. (2025). *High school music*. Achimnara.
- Kim, D. W., Whang, B. S., Kim, J. K., Kim, H. K., Jung, S. Y., Park, B. H., Park, S. J., Kim, K. A., Lee, Y. N., Seo, J. M., Eom, S. Y., Hong, J. S., & Lee, N. L. (2025). *Middle school music 1*. Achimnara.
- Kim, H. J. (2011). An effective approaches to playing the Sogeum -Focused on the middle

-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5(2), 25-66.
- Kim, Y. H., Hyun, K. S., Lim, I. K., Ko, J. H., & Jo, A. Y. (2025). *High school music*. Pakyoungsa.
- Kim, Y. H., Hyun, K. S., Lim, I. K., Ko, J. H., & Jo, A. Y. (2025). *Middle school music 1-2*. Pakyoungsa.
- Kim, Y. H., Min, K. H., Cho, S. I., Ju, D. C., Choi, E. A., Yang, S. Y., Lim, E. J., Yun, G. K., & Park, J. H. (2022). *Learning and teaching elementary music education*. Uhga.
- Ko, Y. S., Gill, H. S., Byun, M. S., Yeo, S. J., Lee, J. H., & Choi, S. G. (2025). *High school music*. Kyohaksa.
- Ko, Y. S., Gill, H. S., Byun, M. S., Yeo, S. J., Lee, J. H., & Choi, S. G. (2025). *Middle school music 1-2*. Kyohaksa.
- Kwon, D. W., Hwang, B. H., Song, J. H., & Park, J. M. (2009).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heory*. Kyoyookbook.
- Lee, D. H., Hong, M. H., Hong, J. P., Gong, H. J., & Lee, J. H. (2025). *Middle school music 1*. Visang Education.
- Lee, H. G., Kwon, O. Y., & Lee, Y. (2002). The comparison of the Piaget's theory and Vygotsky's theory for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1), 5-18.
- Lee, H. J. (2002). Inquiry on Currere as an curriculum understand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4(1), 64-93.
- Lee, J. W., Son, H. Y., Jeong, E. J., Lee, J. W., & Choi, H. W. (2026). *Middle school music 2*. Sungandang.
- Lee, S. K. (2011). The instruments for music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the Gayageum.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32, 173-192.
- Lee, S. K. (2016).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elementary music education curriculum and traditional music instrument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42, 195-221.
-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2024). *Music curriculum revised 2022*. No. 2024-3 [Supplementary 12].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 Park, J. H., Park, J. Y., Kim, K. T., Lee, D. H., Won, C. L., Kim, E. J., & Lim, S. Y.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 Music & Life.
- Park, J. Y., Kim, Y. J., Lee, K. H., Lee, J. H., Jo, S. W., Lee, J. Y., Lee, J. Y., & Lee, J. E. (2025). *Middle school music 1*. YBM.
- Son, M. J., Yoon, A. Y., Lee, J. P., Kim, Y. S., & Lee, K. M. (2025). *High school music*.

Pakyoungsa.

Son, M. J., Yoon, A. Y., Lee, J. P., Kim, Y. S., & Lee, K. M. (2025). *Middle school music 1-2*. Pakyoungsa.

Tyler, R. W. (2024).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H. B. Lee, Trans.). Translator Sallimteo.

Yang, S. Y., Ha, H. R., Kang, M. S., Kim, N. Y., Kim, S. H., Kim, H. A., & Song, S. K. (2026). *Elementary school music 5*. YBM.